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2021. 08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2021. 08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경북경제동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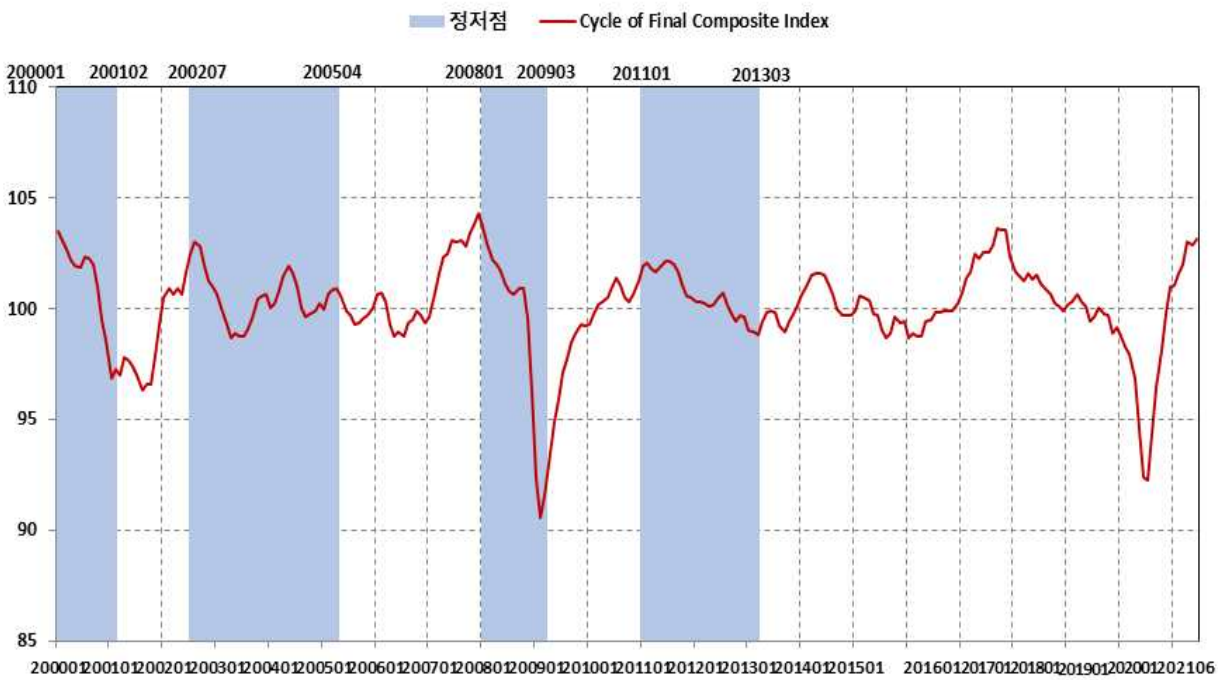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0.06
	BSI	21.08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1.07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1.07
	신용카드사용액	21.05
투 자	자본재수입액	21.07
건 설	건축허가면적	21.07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1.07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1.07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1.08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1.06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1.08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1.07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1.06

경북경제동향 총괄

경 기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교역은 증가세, 제조업 업황도 개선세를 보이며 동행종합지수 상승, 소비심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위축
생 산	•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에 이어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전자부품 생산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코로나19 기저효과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세 지속, 전월대비로는 7월 휴가철, 방학 등 영향으로 판매액 급증
투 자	• 자본재 수입은 기타 자본재 수입을 제외한 수송장비,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이 감소
건 설	• 건설수주액은 도로, 상·하수도, 발전, 기타토목, 신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교 역	• 교역량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철강판 수출이 크게 증가
고 용	•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확대,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9천 명), 제조업(-1만 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락세 불가피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오름세는 둔화했으나, 석유류, 가공식품 등의 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세 지속
금 융	•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과 아파트매매가격은 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상승, 주택거래량은 2개월 연속 감소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 증가세는 둔화, 부도업체수도 전년동월대비 보합

경제지표별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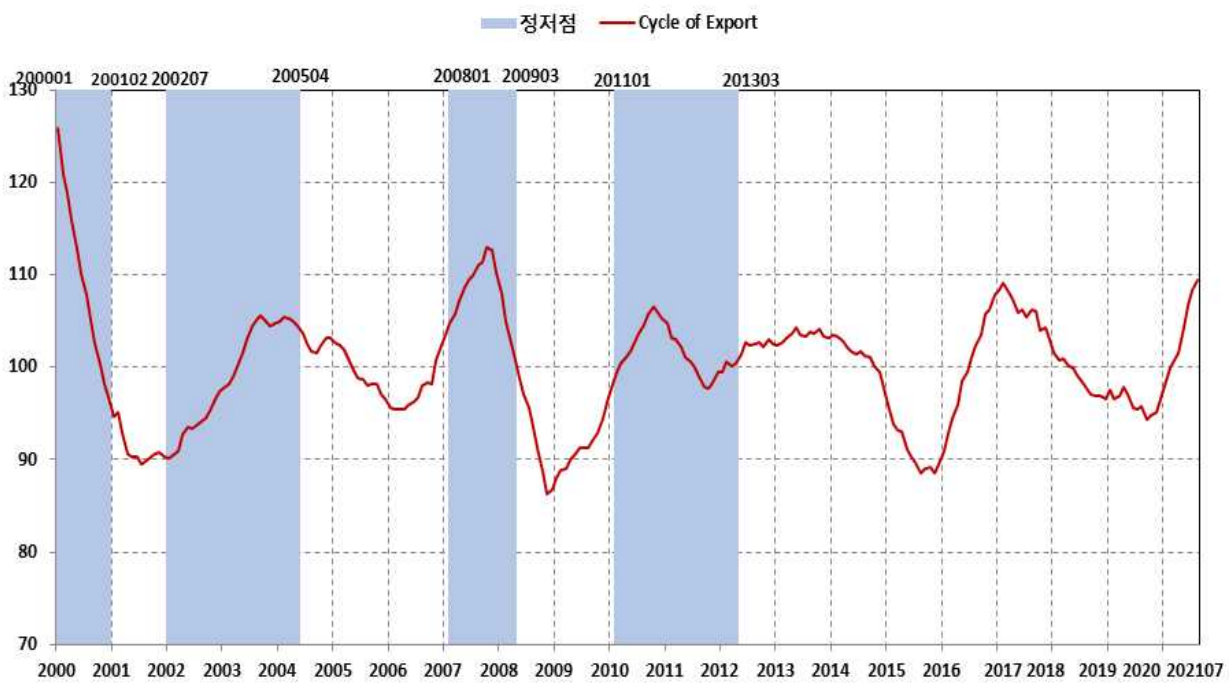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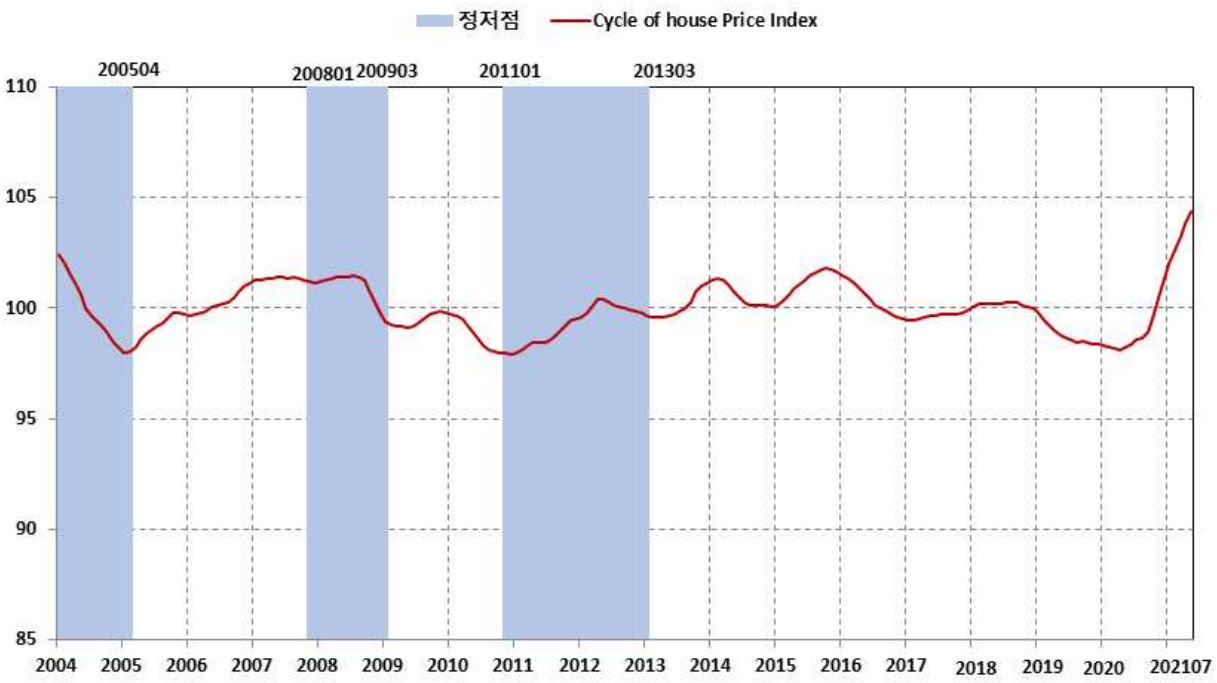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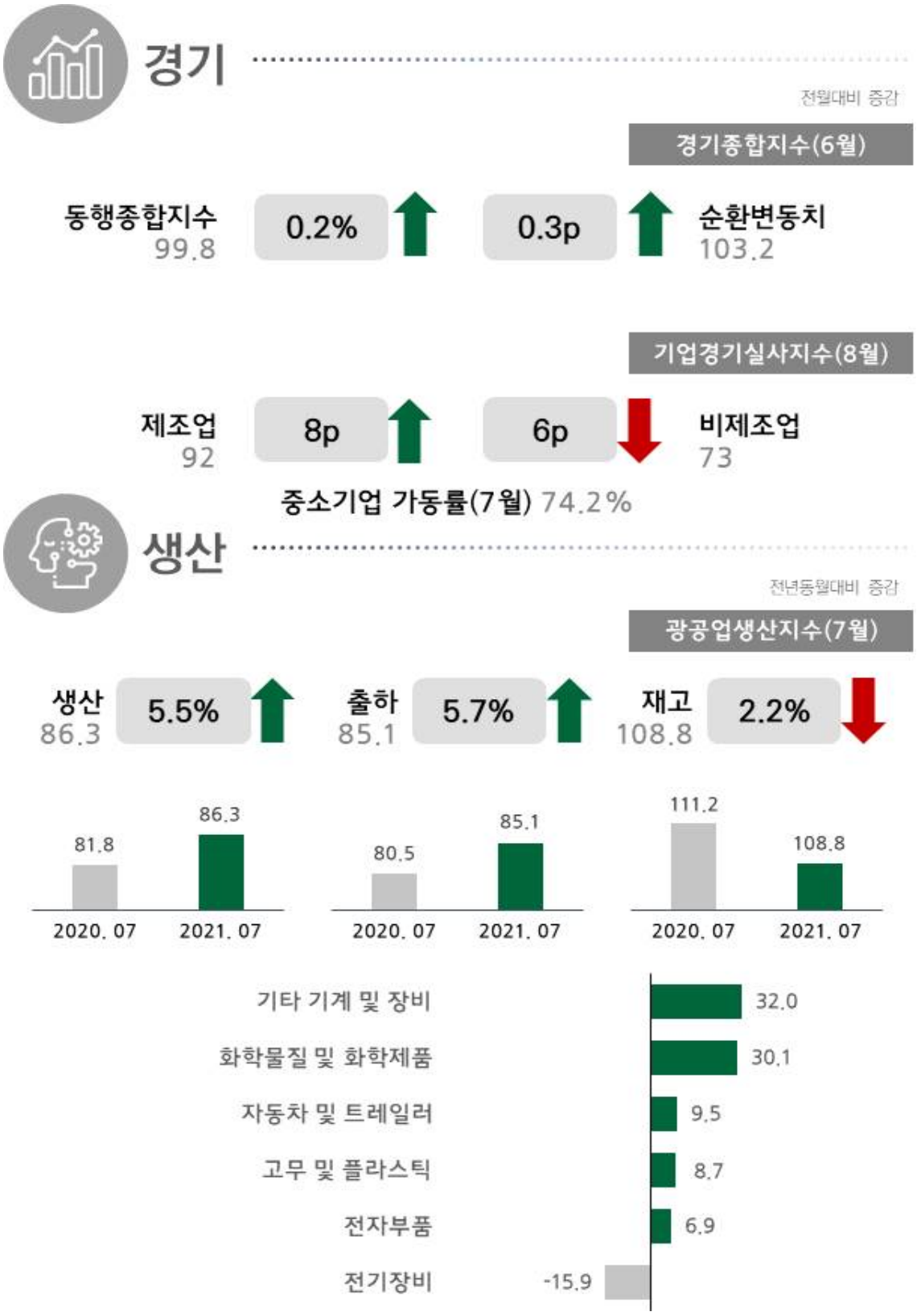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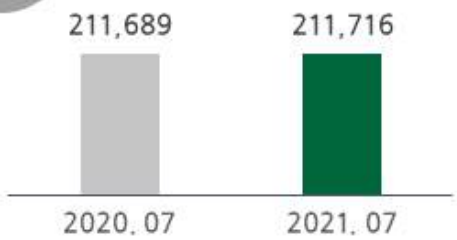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7월)	신용카드사용액(5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7월)
98.4	1조 892억원	7,277대
25.7% ▲	6.3% ▲	1.5%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본재수입액(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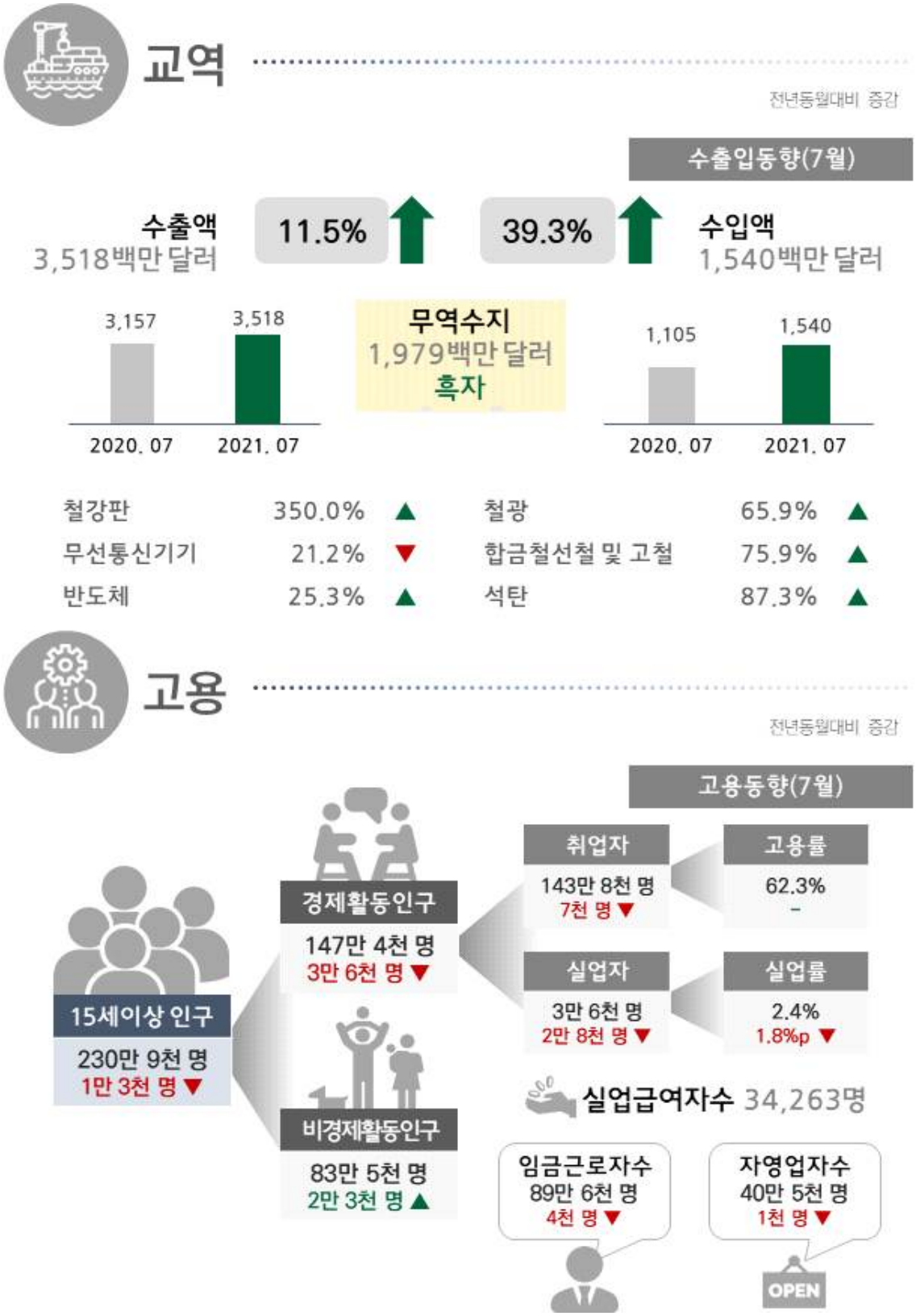
211,716천 달러 17.4%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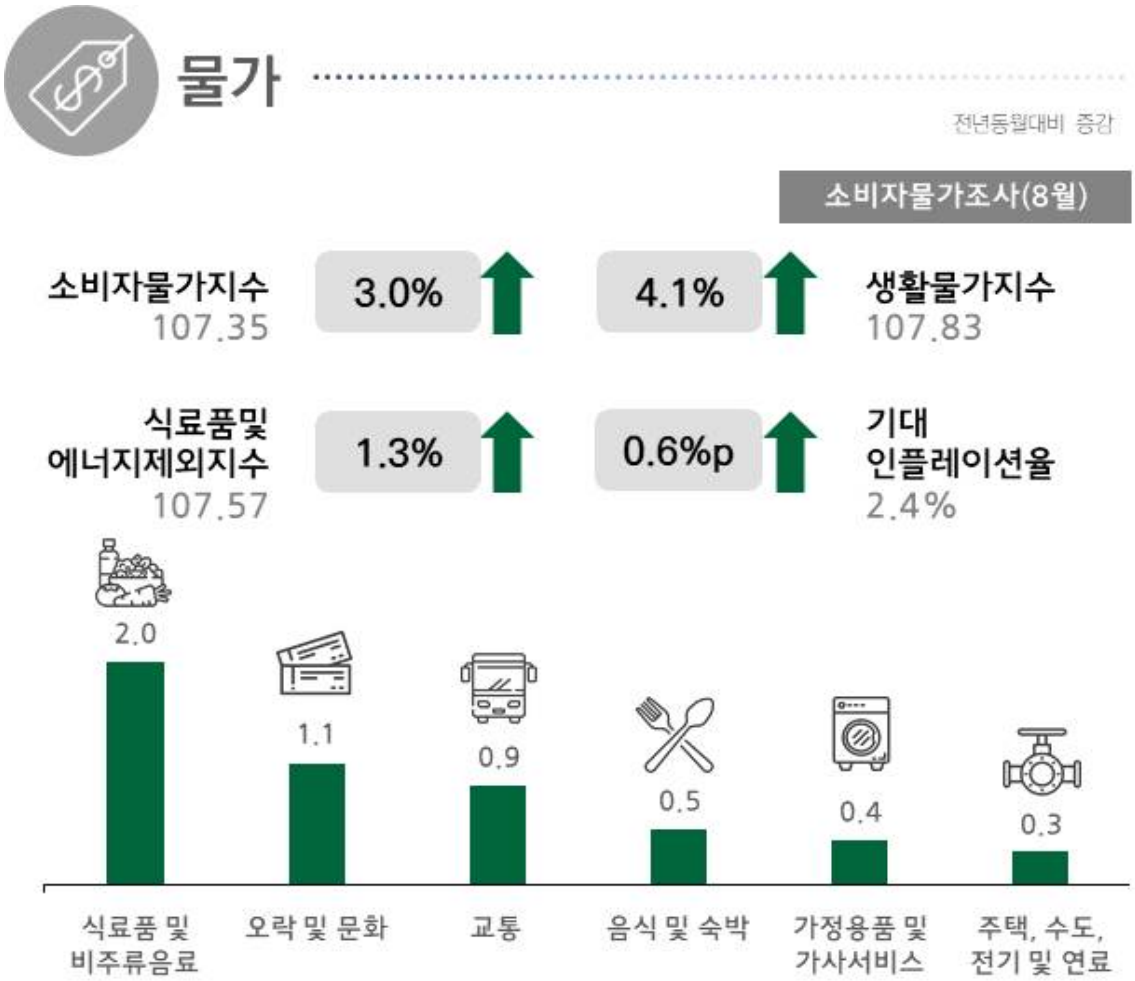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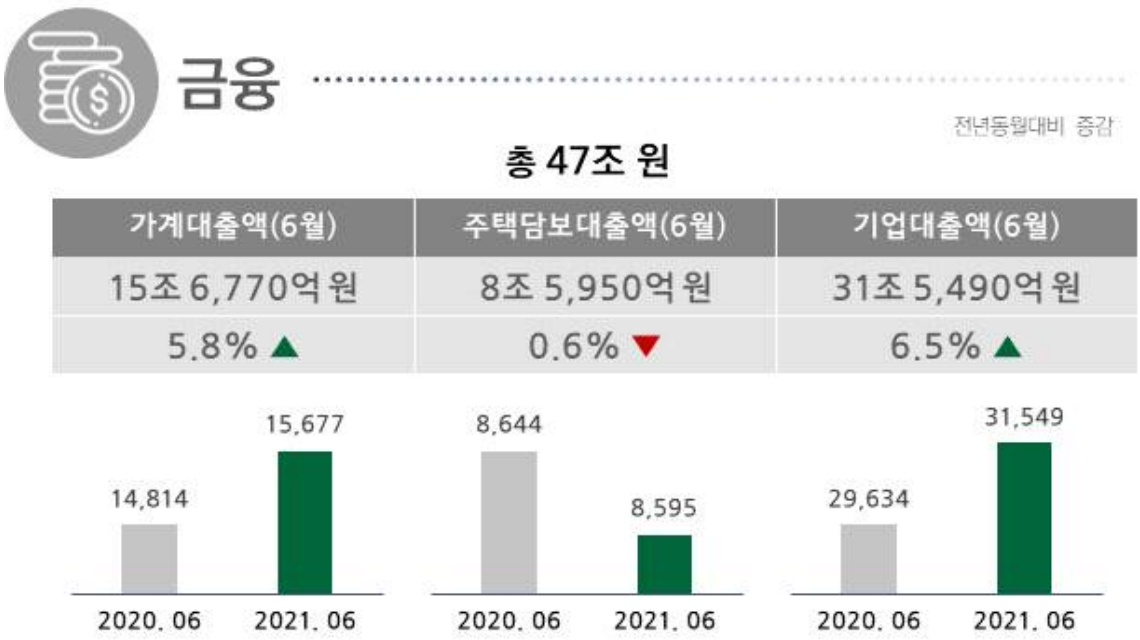
건축물허가면적(7월)	건축물착공면적(7월)	건설수주액(7월)
1,110,817㎡	669,072㎡	6,359억원
82.7% ▲	52.9% ▲	52.6% ▼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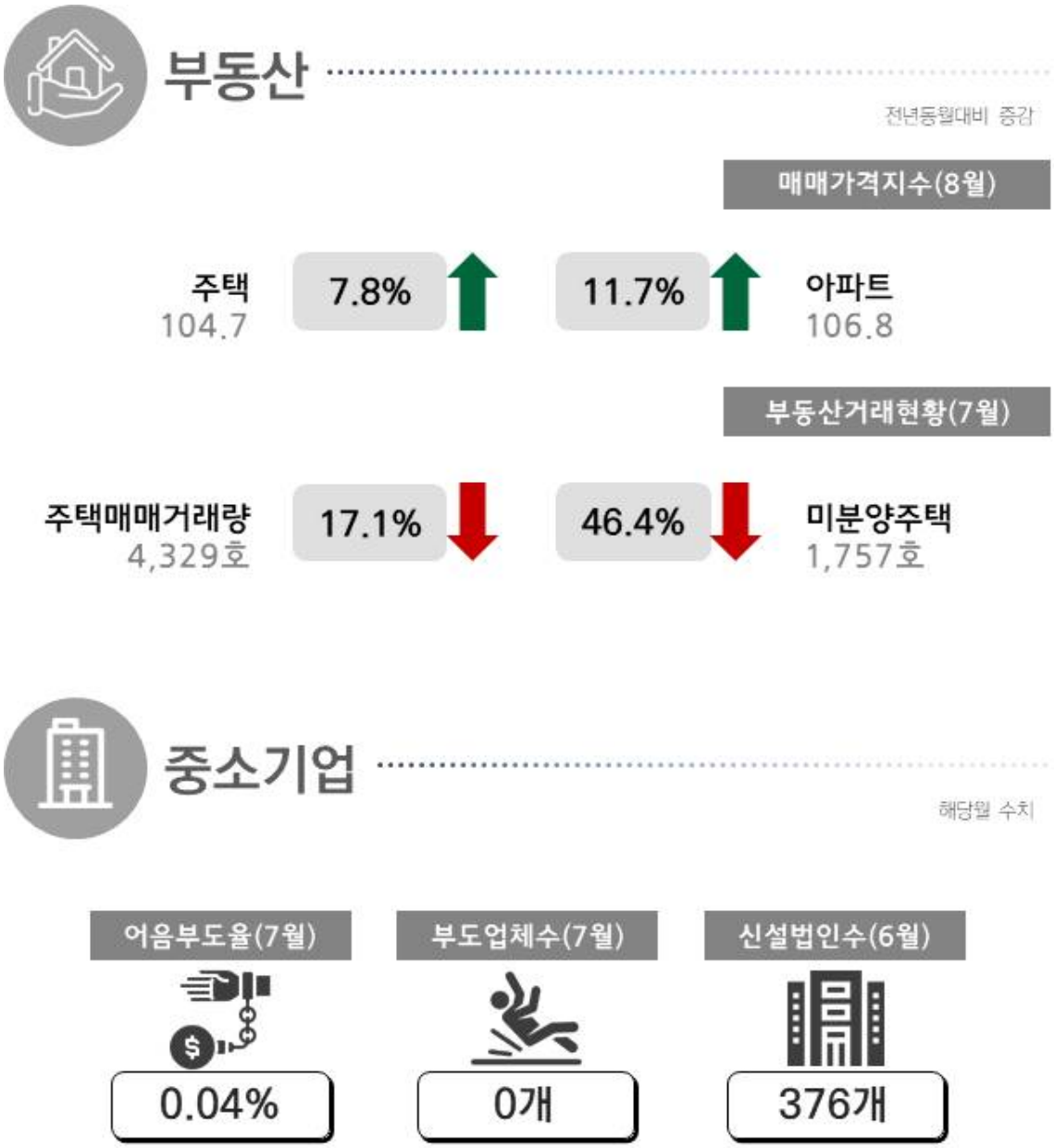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주 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 2. 이미지출처 : FLATICON

경기

6월 경북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2%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99.8로 전월대비 0.2% 상승, 순환변동치는 103.2로 전월차 0.3p 증가

- 구성지표 중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6.6%), 제조업전력사용량(0.7%), 수입액(실질)(3.5%)은 증가, 비농가취업자수(-0.3%),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2.0%),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0.7%), 수출액(실질)(-1.3%)은 감소

6월 국내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16.9로 전월대비 0.3% 상승, 순환변동치는 101.4로 전월차 0.1p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0.6%), 서비스업생산지수(0.5%), 비농림어업취업자수(0.3%), 수입액(1.5%)은 증가, 건설기성액(-1.3%), 광공업생산지수(-0.3%), 내수출하지수(-0.3%)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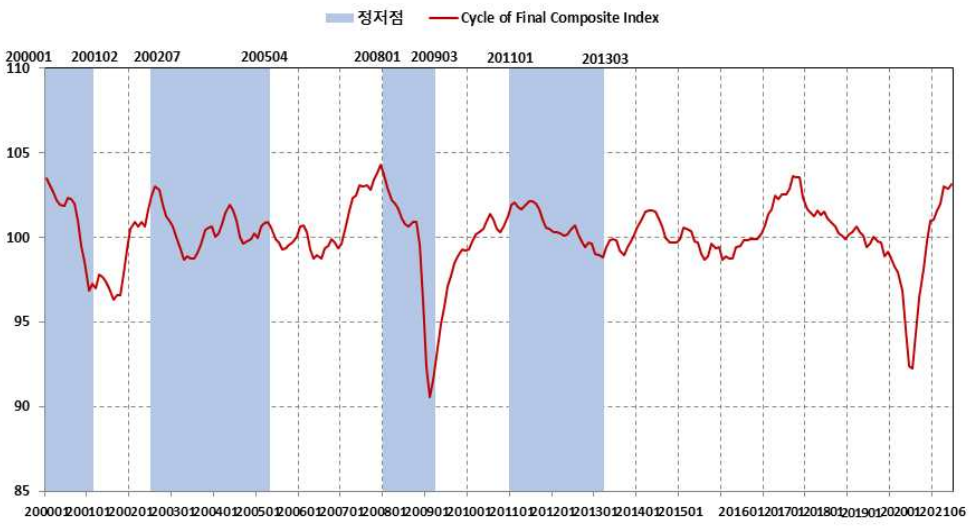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1					
		01	02	03	04p	05p	06p
경북	동행종합지수	97.5	98.3	98.7	99.8	99.6	99.8
	전월대비(%)	0.1	1.2	0.4	1.1	-0.2	0.2
	순환변동치	101.1	101.6	102.0	103.0	102.9	103.2
	전월차(p)	0.1	0.5	0.5	1.0	-0.1	0.3
전국	동행종합지수	113.9	114.3	115.1	116.3	116.6	116.9
	전월대비(%)	-0.1	0.4	0.7	1.0	0.3	0.3
	순환변동치	99.4	99.7	100.2	101.2	101.3	101.4
	전월차(p)	-0.3	0.3	0.5	1.0	0.1	0.1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8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증가, 비제조업 BSI 감소

8월 제조업 BSI는 92, 비제조업 BSI는 73

○ 제조업 업황BSI는 92로 전월대비 8p, 9월 업황 전망BSI는 91로 10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107로 전월대비 9p, 9월 전망은 105로 14p 각각 증가
- 생산BSI는 108로 전월대비 12p, 9월 전망은 103으로 9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89로 전월대비 4p, 9월 전망은 90으로 5p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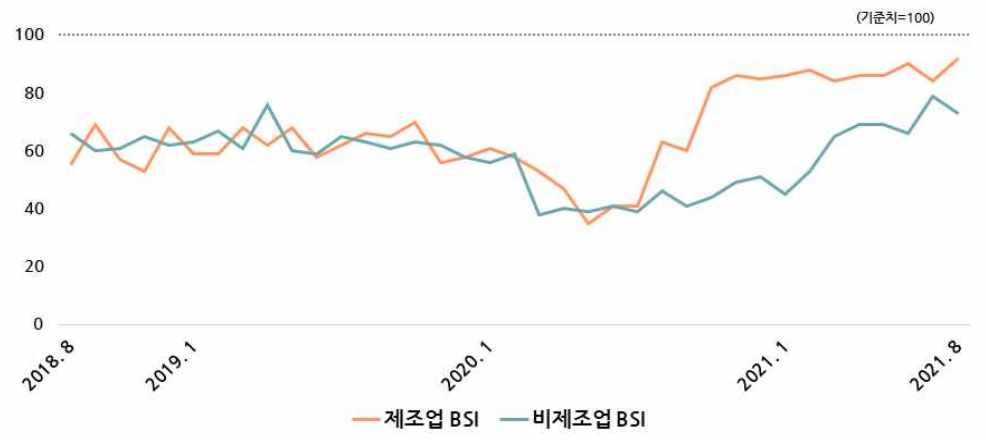
○ 비제조업 업황BSI는 73으로 전월대비 6p, 9월 업황 전망BSI는 72로 5p 각각 감소

- 매출BSI는 76으로 전월대비 4p 감소, 9월 전망은 79로 1p 증가
- 채산성BSI는 74로 전월대비 13p, 9월 전망은 79로 6p 각각 감소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09
제조업 BSI	86 (82)	88 (81)	84 (86)	86 (92)	86 (91)	90 (85)	84 (87)	**92 (81)**	– **(91)**
비제조업 BSI	45 (49)	53 (47)	65 (56)	69 (67)	69 (72)	66 (65)	79 (70)	**73 (77)**	– **(72)**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년 8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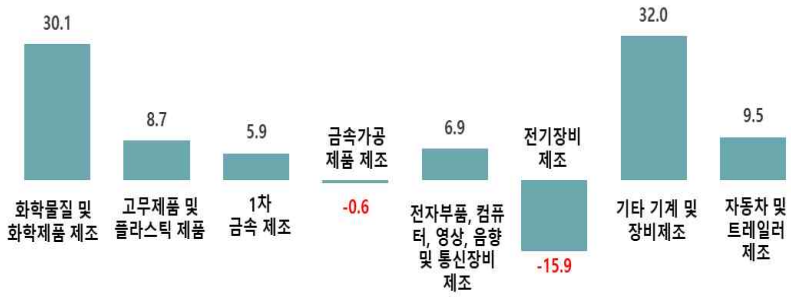
생산

7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증가, 재고 감소

광공업생산지수는 86.3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2.1% 각각 상승

○ 광공업생산지수는 전기장비가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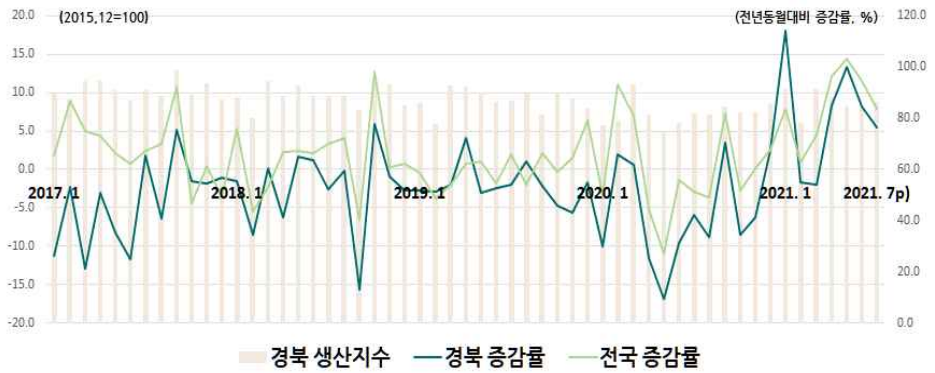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은 화학제품(30.1%), 기계장비(32.0%), 전자부품(6.9%) 등이 증가
- 화학제품은 반도체용식각제, 폴리에스터섬유 등이 증가, 기계장비는 무한궤도, 금융거래자동화기기, 베어링, 전자부품은 휴대용전화기, DDI(DisplayDriverIC), 포토마스크 등이 증가
- 전기장비는 태양광모듈, 차량용조명등, 전력선 등이 감소
- 광공업 생산은 지난달에 이어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생산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81.9	91.5	78.0	91.0	88.4	84.7	**84.5**	**86.3**
(-5.9)	(18.2)	(-1.6)	(-2.5)	(8.3)	(13.4)	**(8.2)**	**(5.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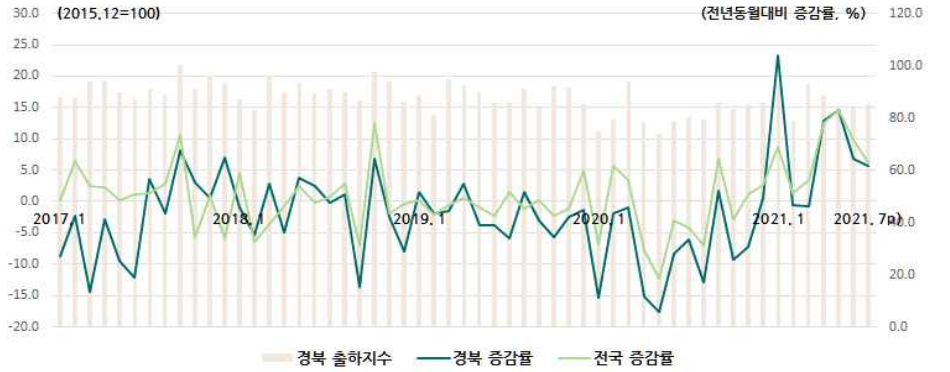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 전년동월대비 5.7%, 전월대비 1.3%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1차금속(10.9%), 전자부품(6.6%), 화학제품(20.7%)등이 증가, 전기장비(-15.7%), 전기·가스·증기업(-17.5%), 가구(-60.9%) 등은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81.6	92.4	79.2	92.9	88.6	84.6	**84.0**	**85.1**
(-7.8)	(23.4)	(-0.5)	(-1.2)	(12.9)	(14.6)	**(6.9)**	**(5.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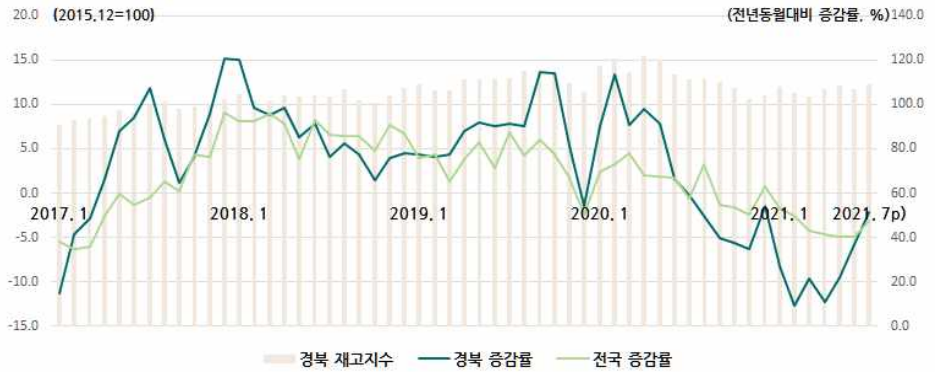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 하락, 전월대비 1.8% 상승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전기장비(30.7%), 기계장비(21.9%), 자동차(11.9%) 등이 증가, 1차금속(-8.6%), 금속가공(-42.2%), 전자부품(-8.5%) 등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104.1	107.8	105.2	103.4	106.8	108.7	**106.9**	**108.8**
(-1.4)	(-8.2)	(-12.6)	(-9.7)	(-12.2)	(-9.5)	**(-5.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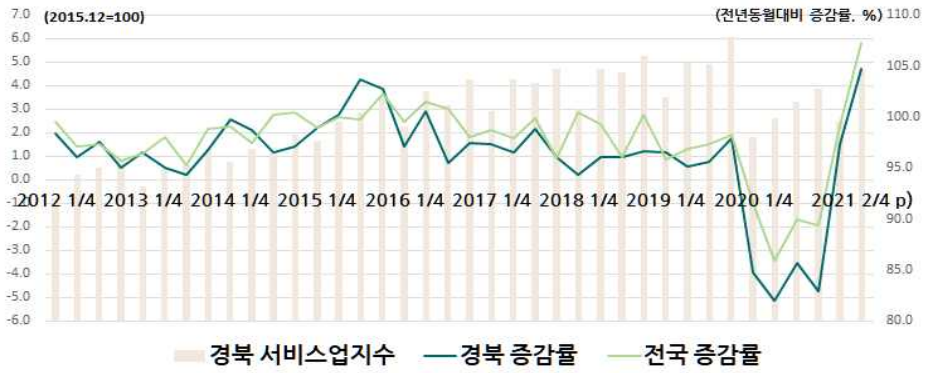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4분기 서비스업생산 전년동기대비 4.9%, 전기대비 5.1% 각각 상승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19		2020				2021	
3/4	4/4	1/4	2/4	3/4	4/4	1/4p	2/4p
105.2	107.9	98.0	99.9	101.5	102.8	99.5	104.6
(0.8)	(1.8)	(-3.9)	(-5.1)	(-3.5)	(-4.7)	(1.5)	(4.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7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25.7%, 전월대비 23.9% 각각 상승

7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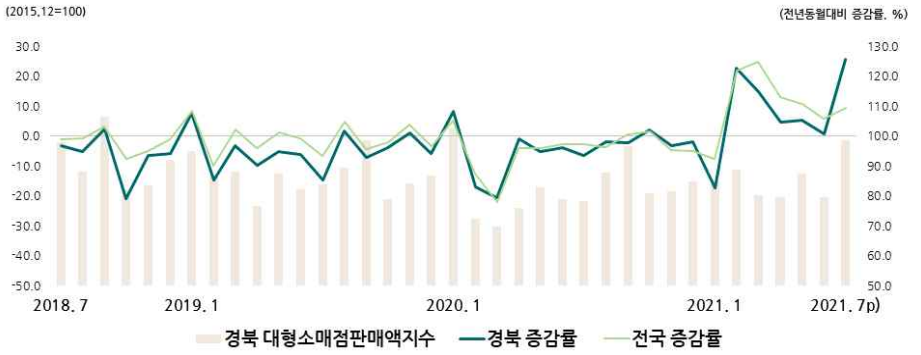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8.4로 전년동월대비 25.7% 상승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7.2로 전년동월대비 9.5% 상승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103.8로 전년동월대비 25.8% 상승
- 전년동월대비 가전제품, 기타상품, 신발·가방, 의복,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은 증가, 화장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대형 소매점	82.7 (-4.4)	84.8 (-17.3)	88.6 (22.7)	80.2 (14.9)	79.5 (4.7)	87.4 (5.4)	**79.4 (0.8)**	**98.4 (25.7)**
대형마트	86.1 (-2.4)	89.1 (-16.4)	92.6 (21.4)	81.1 (7.0)	80.0 (0.9)	88.6 (5.1)	**81.4 (0.4)**	**103.8 (25.8)**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89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3% 상승

○ 식료품(9.7%), 오락·문화(4.7%), 숙박·음식(4.1%)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전자상금융·보험(-89.3%), 거래·통신판매(-85.0%), 가구·가전(-16.1%), 의류·잡화(-15.8%)의 사용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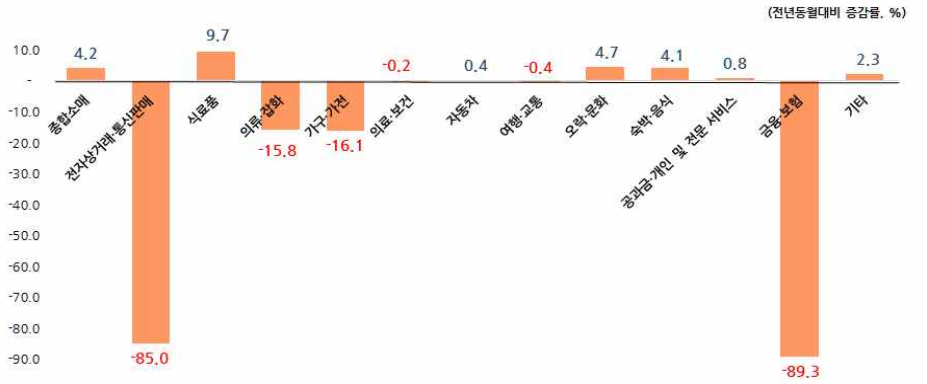
- 종합소매(4.2%)와 숙박·음식(4.1%) 등의 사용액 모두 증가
- 종합소매(4.2%)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6.9%), 슈퍼마켓(3.4%), 대형마트(2.1%)의 사용액은 증가한 반면, 백화점(-3.3%)의 사용액 감소
- 숙박·음식(4.1%) 사용액 중 숙박(50.6%), 음식점(2.4%)의 사용액 모두 증가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0			2021				
10	11	12	01	02	03	04	05
977.6 (-6.5)	979.1 (-5.5)	921.9 (-12.6)	896.5 (-13.4)	880.8 (1.5)	1,012.2 (27.5)	1,011.3 (17.8)	**1,089.2** **(6.3)**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7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7,277대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시스템반도체 부족, 파업 이슈 등 생산 차질 속에서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증가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79,482 (6.3)	7,267 (17.8)	5,238 (18.2)	7,018 (13.0)	6,950 (5.5)	6,393 (-6.5)	7,276 (-15.1)	**7,277** **(1.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9	74,747	56,693	2,050	15,369	635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1.	7,267	5,553	116	1,513	85
2.	5,238	4,026	69	1,090	53
3.	7,018	5,071	125	1,754	68
4.	6,950	5,193	71	1,604	82
5.	6,393	4,802	143	1,350	98
6.	7,276	5,181	138	1,867	90
7.	7,277	4,997	100	2,083	97

투자

7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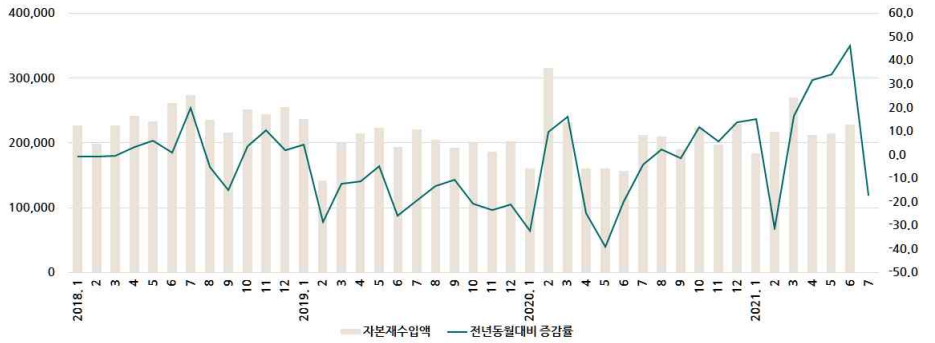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11,716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4% 하락

- 품목별로는 기타 자본재수입(5.9%)을 제외한 수송장비(-32.0%), 기계류와 정밀기기(-23.0%), 전기·전자기기(-5.9%) 모두 감소
- 전기·전자기기 중 무선통신기기(25.4%)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80.0%)의 수입이 크게 감소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펌프(83.8%)와 섬유기계(65.9%)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측정시험기(-66.3%), 금속공작기계(-18.6%), 광학기기(-14.6%)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0	2021						
12	01	02	03	04	05	06	07
229,745	184,199	216,513	270,024	211,687	215,085	228,588	**211,716**
(13.8)	(15.1)	(-31.3)	(16.6)	(31.7)	(33.9)	(46.1)	**(-17.4)**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7월 건축물허가면적, 건축물착공면적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82.7% 상승한 1,110,817㎡

- 용도별로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982.9% 증가한 637,255㎡, 상업용은 160.0% 증가한 202,357㎡, 공업용은 11.8% 증가한 83,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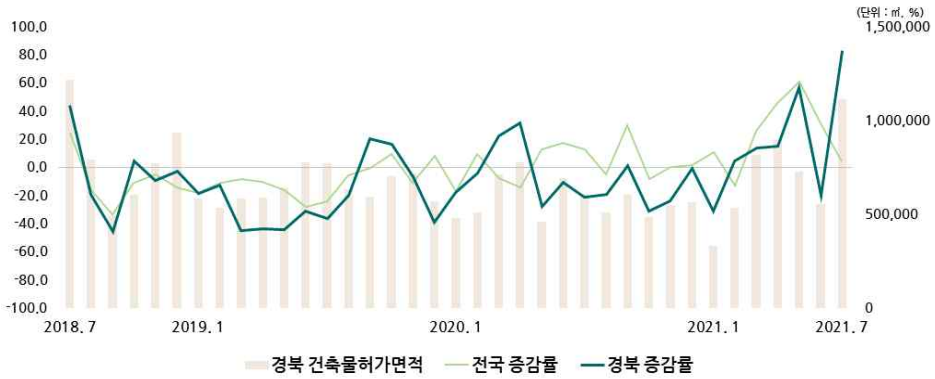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52.9% 상승한 669,072㎡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370.5% 증가한 276,854㎡, 상업용은 8.5% 증가한 84,478㎡,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24.0% 증가한 92,187㎡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 분	2021						
	01	02	03	04	05	06	07
건축허가면적	331,265 (-30.9)	533,422 (4.4)	813,874 (14.0)	894,052 (15.2)	724,581 (56.8)	554,548 (-19.9)	**1,110,817** **(82.7)**
건축착공면적	612,410 (94.5)	304,915 (-21.4)	562,272 (-9.1)	1,078,797 (30.2)	919,423 (119.0)	814,452 (47.0)	**669,072** **(52.9)**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7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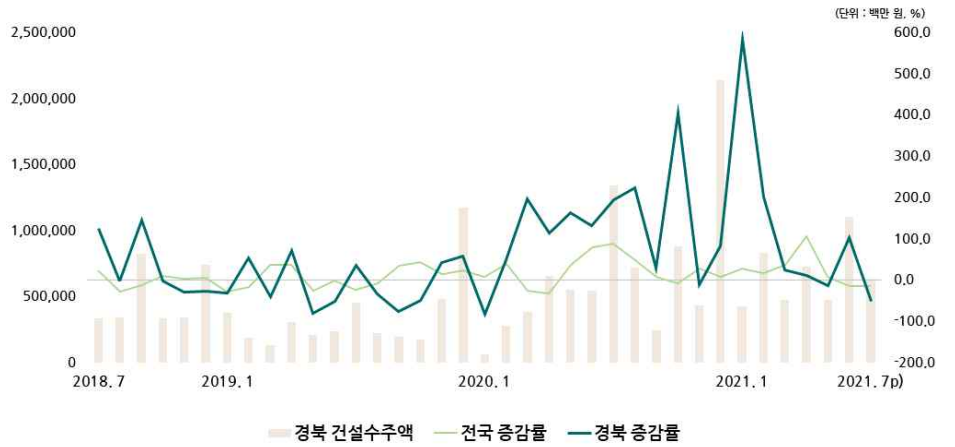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은 도로, 상·하수도, 발전, 기타토목, 신규주택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2.6% 하락한 635,936백만 원

- (공종별) 건축부문 524,148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2%, 토목부문 111,788백만 원으로 84.7% 각각 하락
- (발주자별) 공공부문 79,731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8.5%, 민간부문 556,205백만 원으로 14.3% 각각 하락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p	07p
8,227,951 (98.5)	425,328 (581.9)	830,451 (201.6)	476,191 (23.5)	726,980 (10.6)	475,282 (-14.1)	**1,104,897 (103.3)**	**635,936 (-52.6)**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7월 수출액, 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수출액은 3,518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5%, 수입액은 1,540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9.3% 각각 상승, 무역수지는 1,979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강판(350.0%), 무선통신기기(-21.2%), 반도체(25.3%), 평판디스플레이(60.1%)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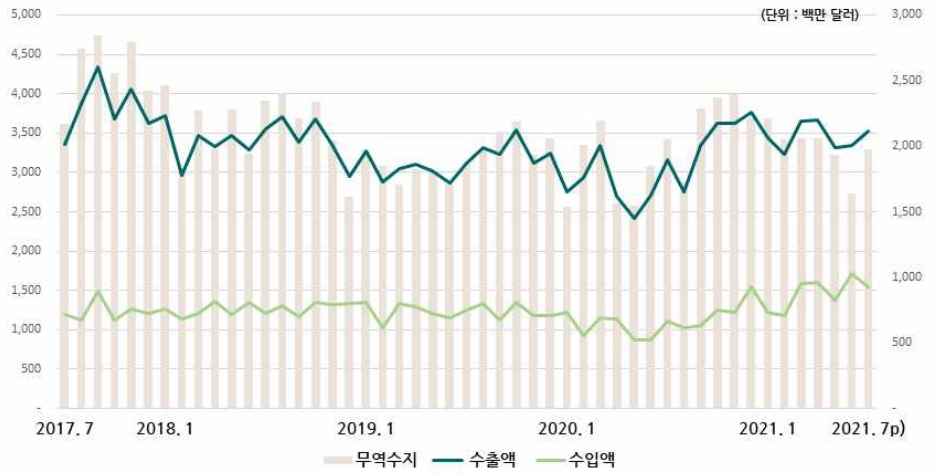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광(65.9%), 합금철선철 및 고철(75.9%), 석탄(87.3%), 알루미늄(79.0%)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19.6%), 미국(30.3%), 베트남(6.4%), 일본(-2.4%) 순

○ 포항시 7월 화물수송은 4,508,285톤(R/T)으로 외항 3,807,436톤(R/T)

수출입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						
	01	02	03	04	05	06p	07p
수출액	3,438 (24.7)	3,226 (10.2)	3,650 (9.4)	3,665 (36.0)	3,305 (37.0)	**3,344** **(23.1)**	**3,518** **(11.5)**
수입액	1,226 (1.4)	1,178 (28.8)	1,589 (38.4)	1,605 (40.6)	1,372 (57.5)	**1,708** **(97.0)**	**1,540** **(39.3)**
무역수지	2,212	2,048	2,060	2,060	1,933	**1,636**	**1,97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7월 경북 경제활동인구 147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 하락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만 6천 명(-2.4%)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전월대비 0.8% 감소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1,478 (-0.7)	1,419 (-3.4)	1,430 (-2.2)	1,452 (0.5)	1,468 (0.9)	1,480 (-1.1)	1,467 (-2.5)	**1,474** **(-2.4)**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월 취업자 143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5% 하락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천 명(-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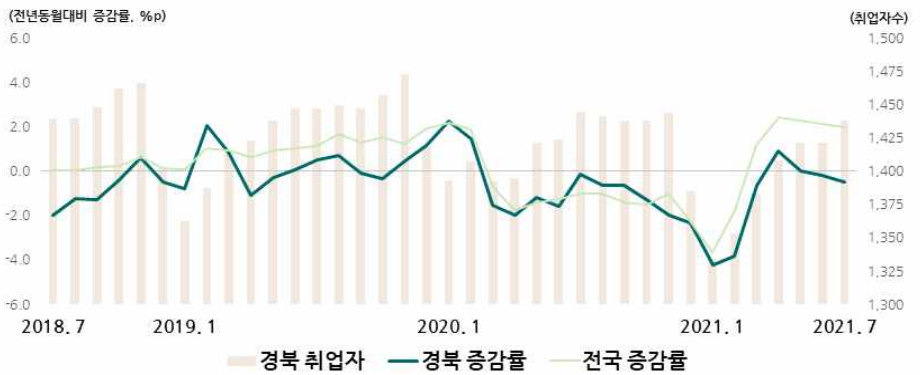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4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1천 명), 농림어업(8천 명)은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9천 명), 제조업(-1만 명), 건설업(-1만 명)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0.5%)은 9대 광역도 중 가장 낮은 상승폭

○ 제조업 취업자수는 27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2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1,418 (-0.8)	1,334 (-4.2)	1,353 (-3.8)	1,383 (-0.6)	1,408 (0.9)	1,421 (0.1)	1,421 (-0.2)	**1,438** **(-0.5)**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7월 고용률 62.3%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 2.4%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62.3%로 전국평균 61.3%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6.3%로 전국 67.1%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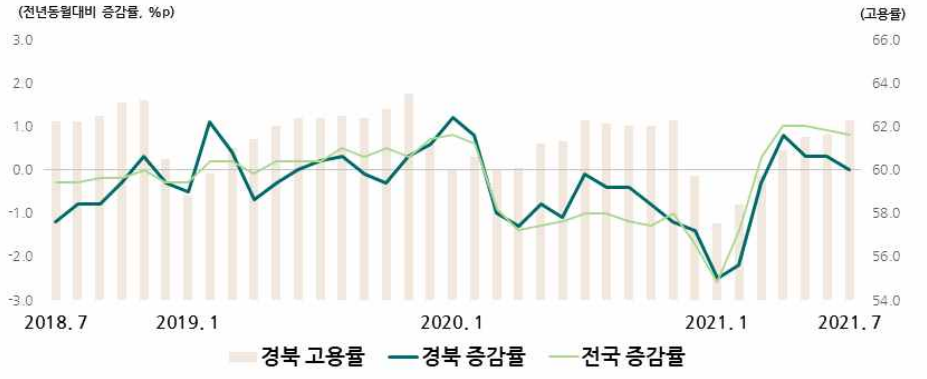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8%p 감소한 2.4%로 전국평균 3.2%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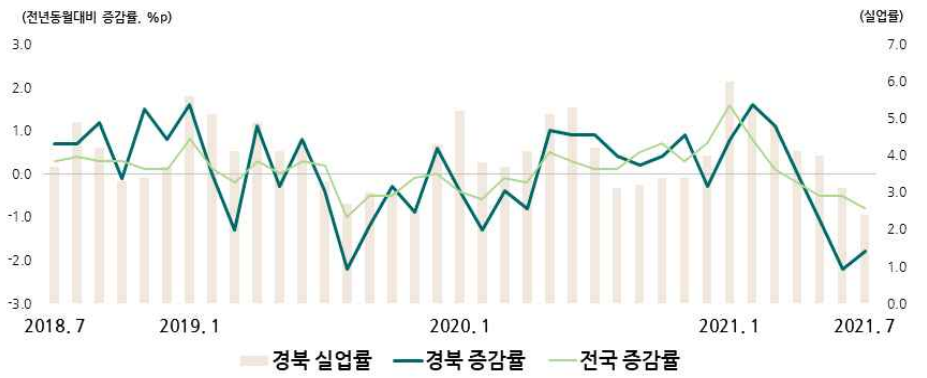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3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천 명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p)

구분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고용률	61.1 (-0.6)	57.5 (-2.5)	58.4 (-2.2)	59.7 (-0.3)	60.9 (0.8)	61.5 (0.3)	61.6 (0.3)	**62.3** **(0.0)**
실업률	4.0 (0.1)	6.0 (0.8)	5.4 (1.6)	4.8 (1.1)	4.1 (0.0)	4.0 (-1.1)	3.1 (-2.2)	**2.4** **(-1.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7월 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한 89만 6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임시근로자수(1.7%), 일용근로자수(4.1%) 증가, 상용근로자수(-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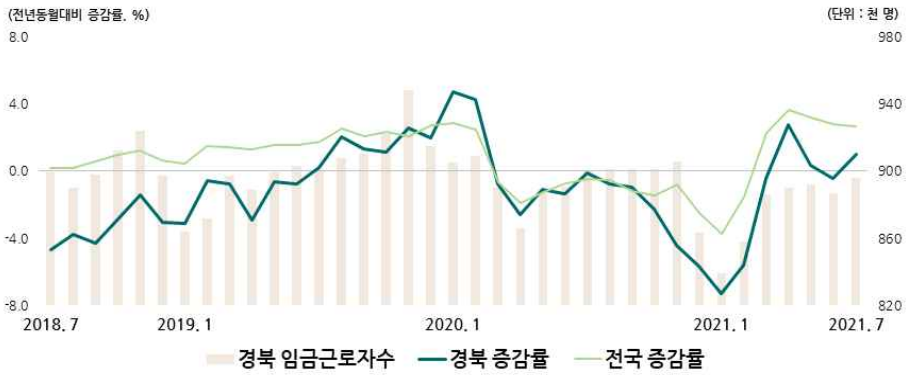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한 40만 5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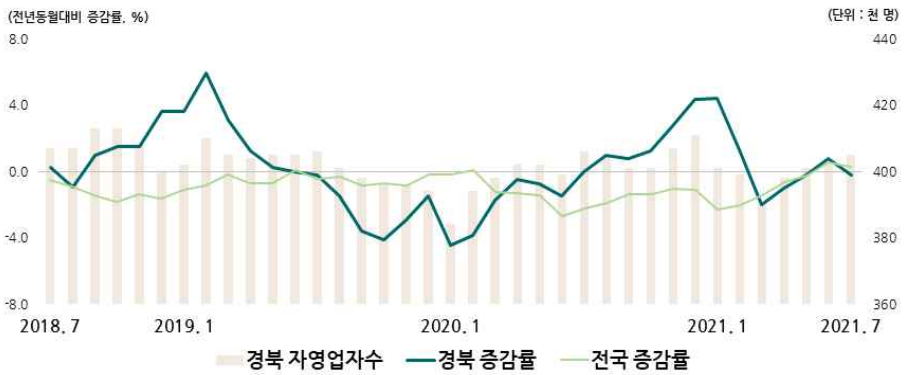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0.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0.2%) 모두 감소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임금 근로자	893 (-1.0)	839 (-7.3)	858 (-5.7)	886 (-0.4)	890 (2.7)	892 (0.4)	887 (-0.5)	**896 (-0.5)**
자영 업자	401 (-0.2)	401 (4.5)	399 (1.3)	390 (-2.1)	398 (-1.0)	401 (-0.2)	402 (0.7)	**405 (-0.3)**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물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5로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전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0%), 오락 및 문화(1.1%), 교통(0.9%), 음식 및 숙박(0.5%) 등은 상승,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통신, 교육은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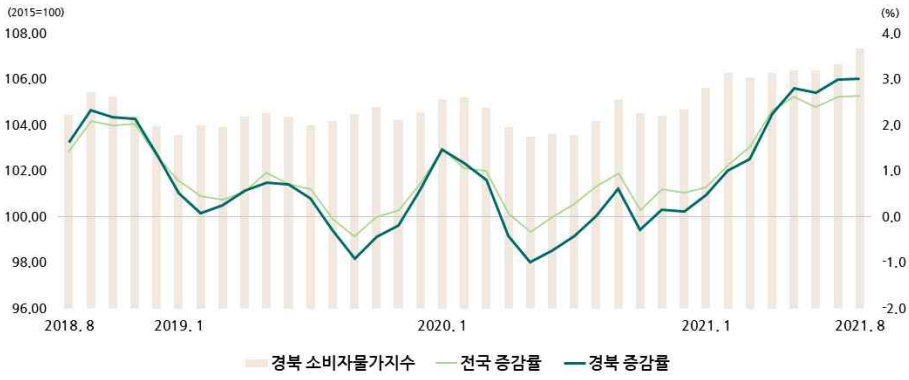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07.83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식품지수는 116.01로 전년동월대비 4.0%, 식품이외는 103.45로 4.1%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0	2021						
	연간	02	03	04	05	06	07	08
소비자 물가지수	104.39 (0.1)	106.28 (1.0)	106.10 (1.3)	106.27 (2.3)	106.41 (2.8)	106.41 (2.7)	106.66 (3.0)	**107.35 (3.0)**
생활 물가지수	104.29 (-0.2)	106.79 (0.9)	106.63 (1.1)	106.67 (2.6)	106.83 (3.6)	106.93 (3.4)	106.97 (4.0)	**107.83 (4.1)**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6월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한 15.6조 원으로 전월대비 0.3% 하락

○ 총 대출액 48조 원 중 가계대출은 32.8% 차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대출 증가 지속

6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14,236	15,579	15,678	15,692	15,717	15,821	15,717	**15,677**
(4.0)	(6.5)	(7.4)	(6.4)	(5.7)	(5.9)	(5.6)	**(5.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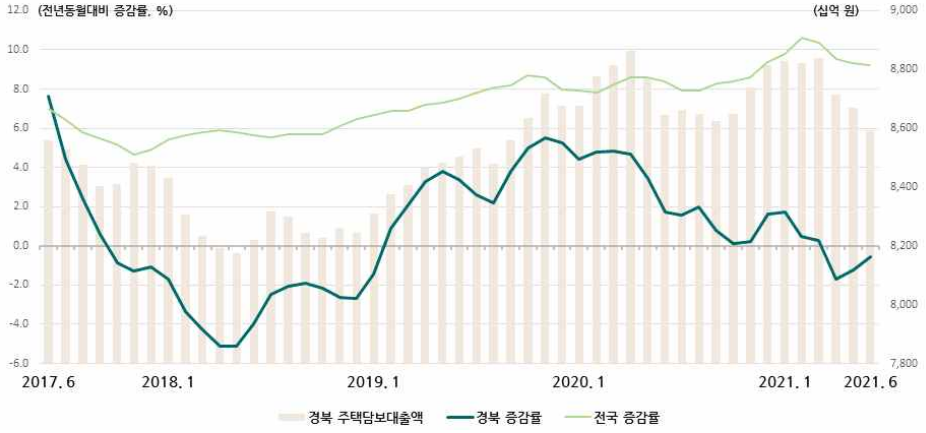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8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0.8% 각각 하락

○ 총 가계대출 15.6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4.8%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8,512	8,815	8,827	8,821	8,839	8,713	8,668	**8,595**
(3.0)	(1.6)	(1.7)	(0.5)	(0.3)	(-1.7)	(-1.2)	**(-0.6)**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6월 기업대출액은 31조 원

○ 기업대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한 31조 원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19	2020	2021					
연간	12	01	02	03	04	05	06
27,103	30,906	31,088	31,227	31,318	31,562	31,615	**31,549**
(4.2)	(10.9)	(11.9)	(12.0)	(11.4)	(9.6)	(7.2)	**(6.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8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한 104.7

- 포항(9.0%), 구미(8.7%), 경산(4.0%)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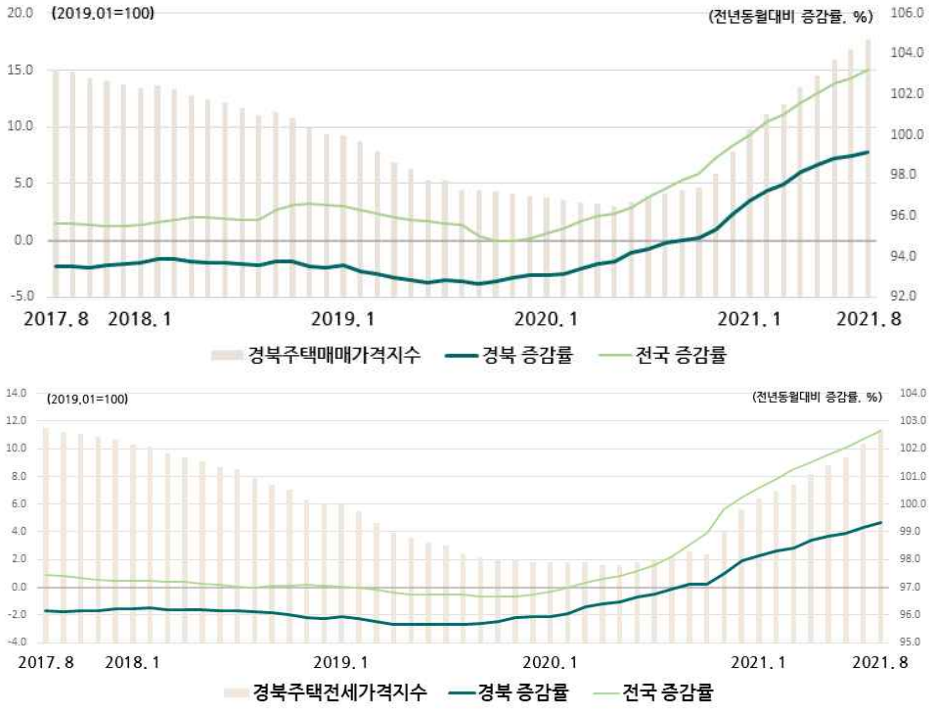
○ 8월 주택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한 102.7

- 포항(6.5%), 구미(4.8%), 경산(1.5%)은 상승

주택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매매	100.3 (3.5)	101.0 (4.3)	101.5 (5.0)	102.4 (6.0)	102.9 (6.6)	103.7 (7.2)	104.2 (7.4)	**104.7 (7.8)**
전세	100.2 (2.3)	100.4 (2.6)	100.7 (2.9)	101.1 (3.4)	101.4 (3.7)	101.7 (3.9)	102.2 (4.3)	**102.7 (4.7)**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 **주택가격지수** : 국민은행에서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일정시점(2019=100)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8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8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1.7% 상승한 106.8

- 포항(15.9%), 구미(12.7%), 경산(6.1%), 안동(6.6%)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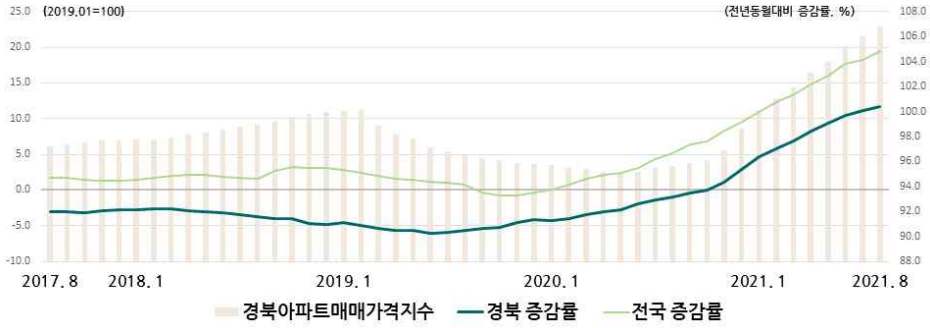
○ 8월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1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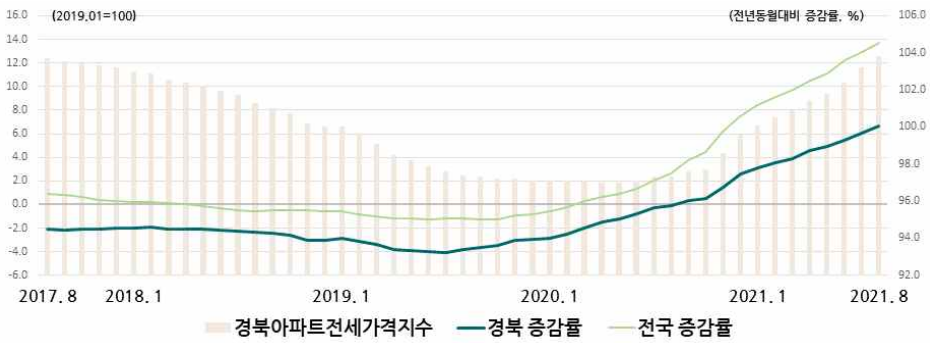
- 포항(10.9%), 구미(7.0%), 안동(2.3%), 경산(2.0%)은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지수

(2019.01=100, 단위 : %)

구분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매매	100.1 (4.6)	101.1 (5.8)	101.9 (6.8)	103.1 (8.3)	104.0 (9.4)	105.2 (10.5)	106.1 (11.1)	**106.8** **(11.7)**
전세	100.1 (3.1)	100.5 (3.5)	100.9 (3.9)	101.4 (4.5)	101.8 (4.9)	102.4 (5.4)	103.2 (6.1)	**103.8** **(6.6)**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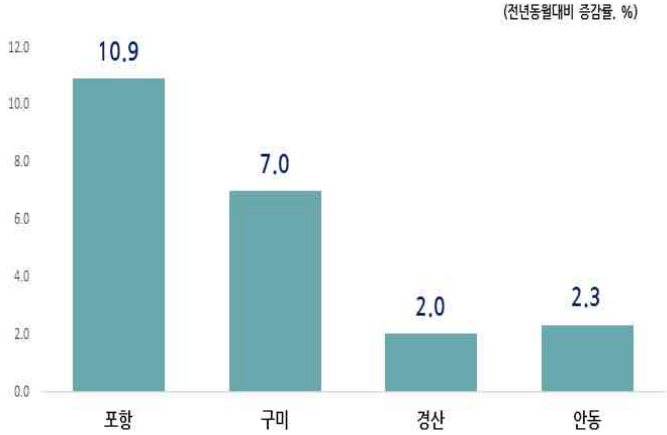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시군별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증감률



7월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하락

○ 주택매매거래량은 4,329호로 전년동월대비 17.1% 하락, 전국도 하락(-37.1%)

- 안동(10.0%)은 증가, 구미(-27.1%), 경산(-25.4%), 포항(-21.5%)의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하락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0	2021						
연간	01	02	03	04	05	06	07
54,138	4,732	4,333	5,755	5,216	4,951	4,494	**4,329**
(56.9)	(30.2)	(7.0)	(76.6)	(69.2)	(23.2)	(-19.4)	**(-17.1)**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7월 미분양주택은 1,757호로 전월대비 195호 감소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김천(894호), 경산·영천(190호), 경주(142호) 순

중소기업

7월 경북 어음부도율은 0.04%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7%p, 전월대비 0.03%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04%이고, 경기(0.38%), 제주(1.66%), 충북(0.09%), 경북(0.04%), 충남(0.03%), 경남·전북·강원(0.00%) 순
- 어음부도액은 전월대비 3.2억 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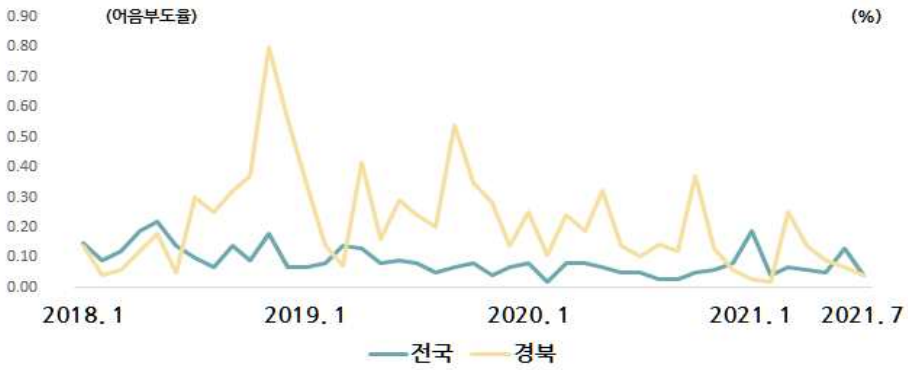
○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총 부도 금액은 6.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억 원 감소

어음부도율, 부도업체 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0	2021						
	12	01	02	03	04	05	06	07
어음부도율	0.06	0.03	0.02	0.25	0.14	0.09	0.07	0.04
부도업체수	0	0	0	0	1	1	1	0
	-3	0	-1	-1	-3	-1	1	0
신설법인수	393	374	319	363	322	280	376	-
	51	14	-32	55	-14	-16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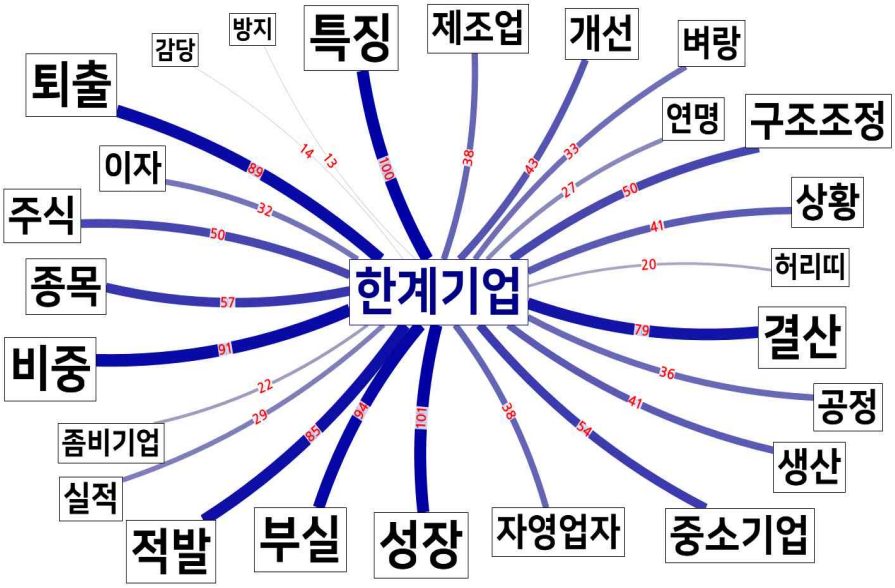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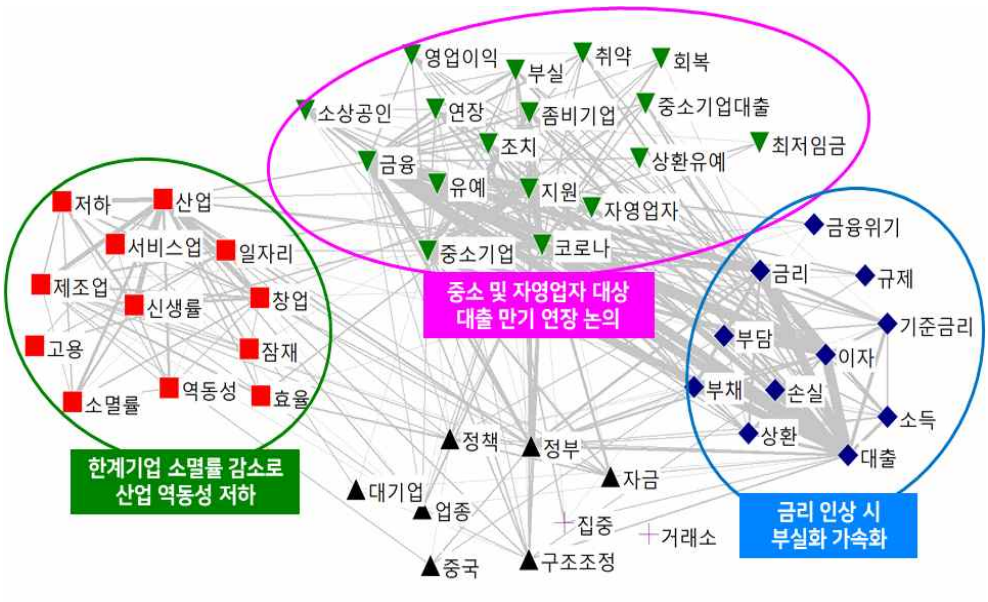
★ **어음부도율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교환금액 중에서 잔고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BIG DATA : 경제분야 키워드

한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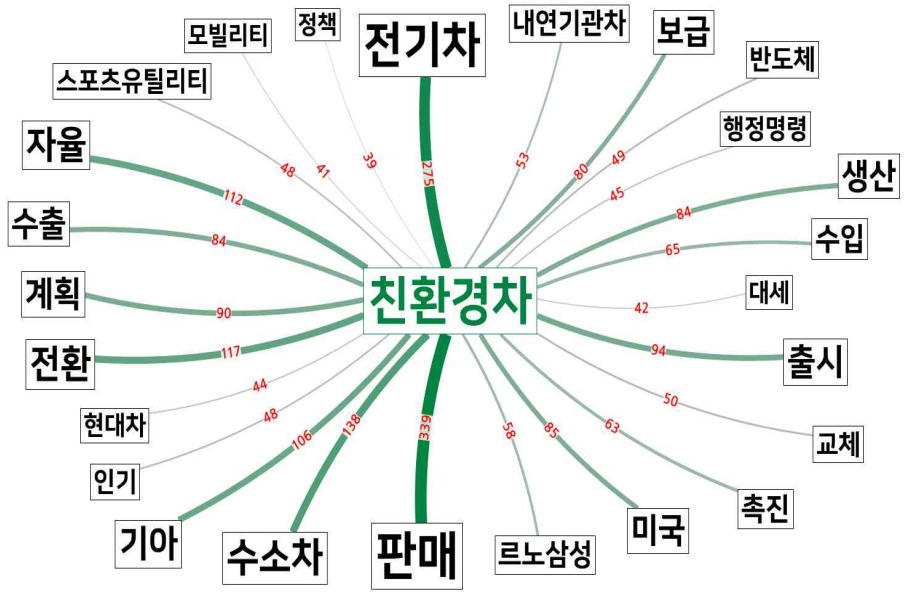


주요단어 : 성장(101), 부실(94), 비중(91), 퇴출(89), 구조조정(50) 등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증가로 산업역동성의 위기와 구조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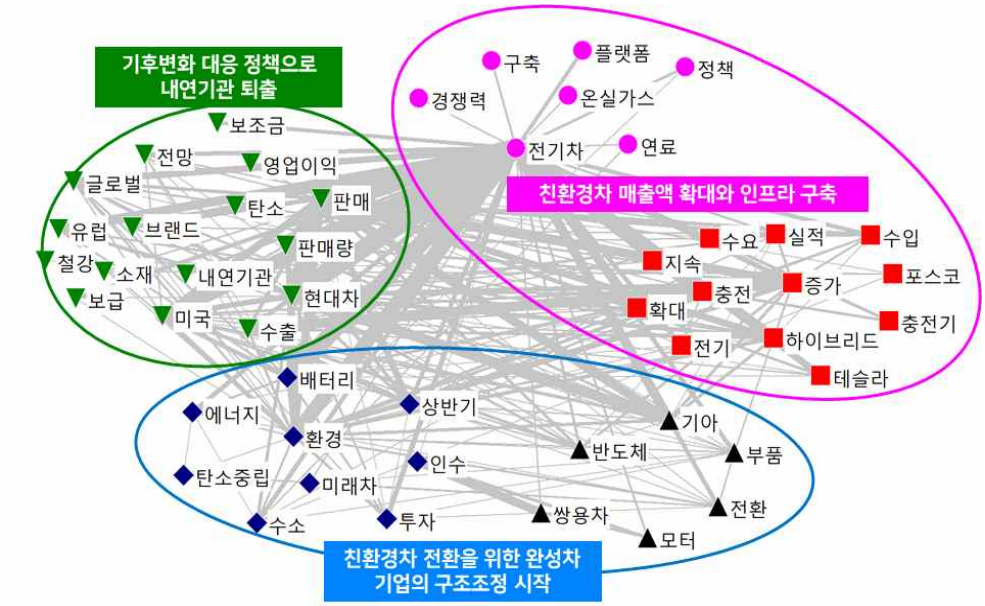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의 동반 감소로 인한 산업 역동성 저하 우려와 향후 금리 인상 시 부실화 가속화, 연착륙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등에 관한 내용

친환경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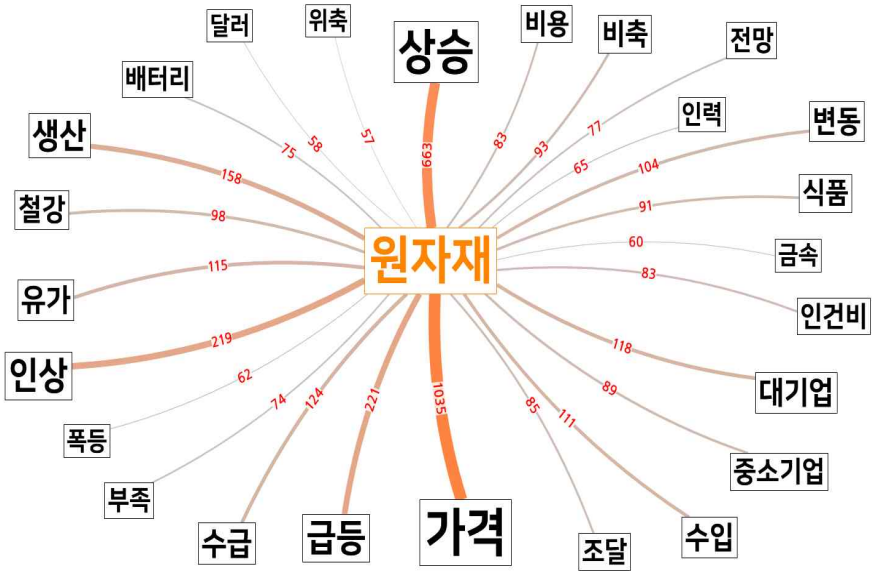


주요단어 : 판매(339), 전기차(275), 전환(117), 수출(84), 내연기관차(53)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 확대와 완성차 업계의 시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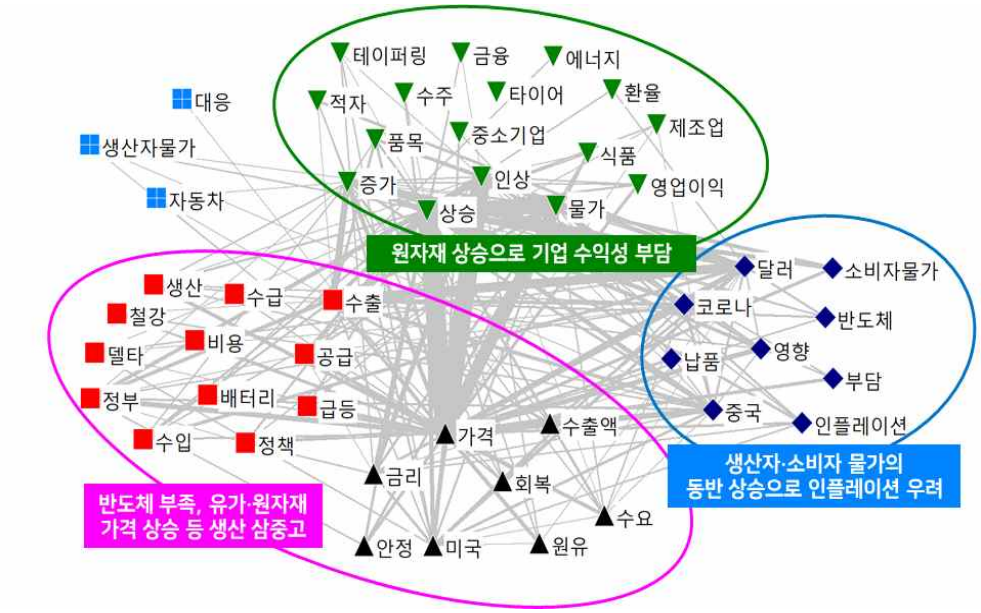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유럽과 미국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내연기관차 퇴출과 친환경차 판매 확대, 그에 따른 친환경차 생산체제 전환에 관한 내용

원자재



주요단어 : 가격(1,035), 상승(663), 급등(221), 유가(115), 변동(104)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우려



주요 주제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물가의 동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우려

※ 분석 기간 : 2021년 8월 1일 ~ 2021년 8월 25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1. 한계기업 : 한계기업 증가와 성장잠재력

〈연관 검색어 : 한계기업, 신생률, 소멸률, 산업 성장잠재력〉

▌현황

○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부진, 수익성 악화로 국내 한계기업 증대

- 국내 외부감사 대상 25,871기업 중 34.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

*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 생존이 어렵고 성장이 불가능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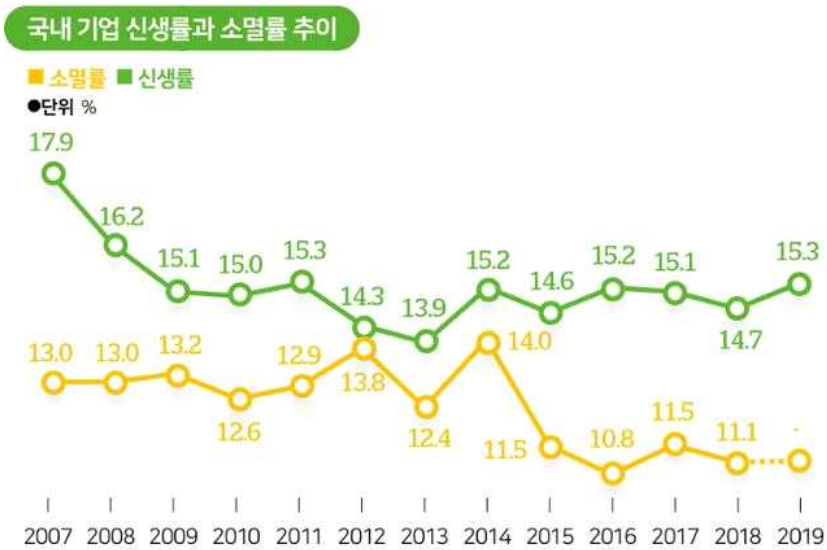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에 대해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2]이 1 미만인 기업(한국은행, 2016)'으로 정의

○ 대부분의 한계기업은 정부의 대출만기·이자 유예 조치로 여전히 기업 활동을 영위 중

▌영향

○ 한계기업 증가로 인한 국내 기업 신생률 및 소멸률 감소(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2021)

- 신생률 : 2007년 17.9% → 2019년 15.3%
- 소멸률 : 2007년 13.0% → 2018년 11.1%



자료 : 한국일보, 2021.08.03

▲ 국내 기업 신생률과 소멸률 추이

○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 교체율* 또한 연평균 25.0%(2011~2015년)로 독일(53.8%), 미국(46.9%) 보다 큰 차이(현대경제연구원)

* 교체율 = 신생률 + 소멸률

○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감소했다는 의미

2)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1보다 적으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을 의미

▮ 대응

○ 한계기업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정부의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 유예와 같은 금융 지원이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연쇄적 도산 우려
-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해 금융적 지원을 끊고 퇴출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해결책
-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마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多

○ 국내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및 지원책 마련 필요

- 산업 역동성은 결국 새로운 기업이 발현되며,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면서 선순환적 구조 창출
- 따라서 창업 활성화 정책 및 정부 주도의 사업재편·구조조정 지원책 마련 필요
- 또한 한계기업 선별 시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실무적이고 탄력적인 기준 마련 필요

2. 친환경차 : 빠르게 전환하는 자동차산업, 시급한 대응 필요

〈연관 검색어 : 전기차, 미래차, 내연기관차, 탄소중립, 자동차부품〉

▮ 현황

○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 중[3)]

-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판매량은 오히려 125% 증가
- 그 결과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은 2020년 상반기 6.8%에서 2020년 하반기 9.2%, 2021년 상반기 12.0%로 빠르게 증가
- 배터리 전기차가 171%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160%, 하이브리드 차는 92% 상승

○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움직임 등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도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 중

- 세계 자동차산업은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city)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 중[4)]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은 2030년 또는 2040년 내로 휘발유차 퇴출 또는 휘발유 신차 판매 금지 정책 발표[5)]

○ 이러한 변화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대응 준비는 미흡한 상황

-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를 “엔진, 구동장치” 중심에서 “전장부품, 이차전지, SW, 서비스,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이에 따라 엔진, 동력전달 부품 등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6)7)]
-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47%가 사업 재편 필요 분야에 해당하지만 부품 기업의 81.6%가 미래차 대응 계획이 없다고 조사[8)]

▮ 영향

○ 201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역량의 한계로 실패

- 부품기업의 83%가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스스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부족
-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대부분이 국내 완성차사에 종속된 상황으로 독자적으로 미래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부족

○ 정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 시대 도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발표

- 권역별로 “미래차 전환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환 기획역량 강화와 업종 간 연대·협력과 이업종 융합 등을 지원 계획
- 그 외에 미래차 핵심 부품·소재, 전략 품목, 새로운 제품 등의 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홍보·마케팅 지원, 자금, R&D, 인재양성 등의 지원 등의 내용 포함
- 그럼에도 “미래차 전환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외에는 미래차 부품 개발 전략의 색채가 짙다고 평가할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3) 한국자동차연구원, 2021,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분석”; 경향비즈, 2021년 8월 23일, “반도체 수급난 속 친환경차는 질주…판매량 125% ↑” 재인용

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1. 6.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5) 대구경북연구원 2021. 4. “가속화되는 자동차산업의 탈탄소화”, 글로벌경제진단, No.11

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1. 6.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7)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무공해차의 비중을 50%까지 높일 것을 천명

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1. 6.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 대응

○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서둘러야 할 필요 존재

-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 제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이고, 경북에서도 전가전자, 철강 등을 이어 비중이 높은 산업
- 전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완성차사에 종속되어 있으며 사업재편 필요 분야에 속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
- 미래차 부품 분야로 사업 재편, 또는 이업종과의 협력을 통한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힘들기에 보유 기술과 생산공정,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

3. 원자재 : 원자재 가격 상승의 경기 불확실성과 지역 대응방안

〈연관 검색어 : 생산자물가, 1차 금속제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원가연동제〉

▮ 공산품 원자재 가격 상승

○ 생산자 물가 변화를 통한 원자재 가격 상승 확인 가능

- 생산자물가 변화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비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산품의 원자재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2021년 2분기 생산물가 총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52 증가, 농림수산품은 12.99, 광산품은 5.17, 공산품은 10.45 증가
- 광산품 중에서는 특히 기타비금속광물이 전년동기대비 76.82로 많이 증가
-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감소

○ 공산품 생산자 물가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중 특히 제1차 금속제품의 생산자 물가의 증가폭이 높음(전년동기대비 24.9 증가)

- 목제(19.98)와 제재목(30.42)이 많이 증가하고, 펄프(45.12), 골판지 및 골판지가공품(31.65)도 많이 증가
- 석유석탄 관련 원유정제처리제 원유정제처리제품, 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은 2021년 2사분기 가격지수가 전년동기대비 작게는 30 이상 크게는 60 이상 인상
- 1차 금속제품 중에는 철강1차 제품(24.96), 열간압연강재(29.01), 철근 및 봉강 (30.84), 형강(43.88), 중후판(두께3mm이상)(41.87), 열연강판(26.69), 냉간압연강재(28.19), 표면처리강재(40.57) 등의 원자재 물가가 많이 증가

〈표 1〉 생산자 물가 변동

전체생산자 물가	2020 2/4(A)	2021 2/4(B)	증감(B-A)
총 지수 (2015=100)	102.12	108.64	6.52
농림수산품 (2015=100)	121.22	134.21	12.99
광산품 (2015=100)	111.97	117.14	5.17
공산품 (2015=100)	**98.20**	**108.65**	**10.45**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2015=100)	100.11	97.03	-3.08

주 :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2015=100)
자료 : 한국은행,「생산자물가조사」



자료 : 한국은행,「생산자물가조사」

〈그림 1〉 생산물가 추이

○ 대구 경북은 중간재 생산 경제구조 특성 지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한 구조

- 지역은 2차 3차 벤드 기준 기업 분포가 많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단가 상승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수익성 감소
- 지역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상승비용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만, 대기업에 원자재 납품받는 중소기업은 인상분을 반영 못해 채산성 악화 호소

▮ 원자재가격 상승 납품단가 반영 정도

○ 원자재 가격상승분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은 전체의 86% 정도로 낮음

- 원자재가격 상승에 납품단가 반영의 경우 '일부만 반영(43.2%)' 및 '전혀 못함(43.0%)'이 전체의 86%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원자재 값이 올라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원자재 가격변동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7.4%, 영향 없다는 응답은 11.8%
- 1분기 매출액 감소기업은 96.4%, 매출액 변동 없는 기업은 73.6%가 원자재 가격변동을 부정적으로 평가

○ 섬유(84.0%), 건설업(84.6%), 식품업(50.0%), 자동차/운송/조선업(50.0%)에서 납품단가 반영 비율이 낮음

-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탁기업의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5.0%),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31.8%), '경기불황에 따른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23.9%) 등 순
- 그 외 거래처 이탈 우려와 경쟁업체와 가격경쟁, 최저가 입찰제는 원가 반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
-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응책이 없다'(71.4%)라는 절망적 의견이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납품일자 조정'(19.6%), '다른 원자재로 대체'(3.8%) 등
-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가연동제'(37.4%)이며,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31.4%), '대기업의 상생의지'(22.8%) 등임. 그 외 정부의 가격 조정 노력, 세금 인하, 최저 입찰제 보완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 대상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2021.7)

▮ 지역 대응방향

○ 대구경북 지역 원자재 가격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 통한 지원체제 마련

- 지역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종별 손실 분 확인과 지원체계 마련

※ 공산품 원자재 생산자물가 변화를 통해 원자재 상승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원자재 활용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 등 지원체제 마련

※ 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가 표본조사 한 지난 7월 중 중소제조업의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달(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한 72.1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정상가동률(80%)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공구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와 재고부담, 수입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 발생
- 품질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판로개척과 이를 위한 기업지원기관의 지원체계 마련(대출 및 보증 지원)

○ 신규설비투자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부채비율 조정 필요

- 기업의 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에서 부채비율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하는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제 마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때 해당기업의 전년도 부채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년 부채비율이 개선됐다면 보조금 지원 가능 정책 마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

→ 회계연도 중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기업은 반기 또는 분기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원자재가격이 전년동월대비 20% 이상 증가 시 신규설비투자보조금 신청 시 요건 다소 완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1호)에 따르면 기업유형별 중견 중소기업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음
- 완화조건을 예로 들면, 균형발전 중위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에서 15% 이내로, 균형발전 하위지역의 경우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14% 이내에서 20% 이내로, 산업위기 대응지역의 경우 24%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표 2〉 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대상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 상생형 일자리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자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1호)
(https://www.investkorea.org/jnbk-kr/cntnts/i-2534/web.do)

○ 자재 가격상승과 연계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

- 향후 기상 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제도(IR방식 심의제도) 마련
-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 자재 가격이 일정 정도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재 창업 기업의 신규보증 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신규 개발제품 시험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정부의 가격 조정 노력, 세금 인하, 최저 입찰제 보완 등이 필요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위 원 : 임규채, 김용현, 최재원

전 문 위 원 : 한장협

연 구 원 : 이승아, 박효찬, 송화영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